

국힘 “110석+α” 민주 “120~150석+α” 전망

수도권 등 50~60곳 접전 양상
국힘 “맹추격” 민주 “승기 잡아”
조국당 최소 10석 안팎 전망
진보당 5석·개혁신당 1~2석

4·10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7일 예측 불허의 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여야의 예상 의석 수가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0석+α”, 더불어민주당은 “120~150석+α”라는 의석 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 판세를 가르는 수도권과 중원, ‘낙동강벨트’ 등 50~60곳에서 여야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성패에 따라 전체 의석 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과 막말이 선거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캐스팅보트인 2030과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수도권 등 접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반사 이익을 얻으며 막판 맹추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서울 15곳, 인천·경기 11곳, 충청 13곳, 부산·울산·경남 13곳, 강원 3곳 등 주요 격전지를 망라하는 55곳을 3~4% 이내에서 이기고 있거나 지고 있는 경합 지역으로 보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충남 당진시장 오거리에서 정용선 당진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홍익표 서초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내에선 박빙 선거구와 비례대표 의석(국민의미래) 등을 합치면 개헌 저지선(101석) 확보를 넘어 현재 의석 수보다 많은 11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례 의석수 전망치는 17~20석이다.

정양석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존 관측이던 ‘82석+알파(α)’ 보다는 많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고무적인 분위기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표심으로 표출됐다고 보고,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대외적으론 ‘지역구 110석’을 제시하면서, 내부적으론 ‘150석+알파(α)’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직 지역으로 분류한 선거구 50~60곳도 상당 조정하는 분위기다.

서울에선 강서갑·을·병(강선우·진성준·한정애)과 강북갑·을(천준호·조수진) 등 23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예측했다. 마포갑(이지은)과 서대문갑(김동아), 용산(강태웅) 등 핵심 격전지에서도 승기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60석)의 경우, 50개가 넘는 선거구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성남 분당갑·을 판세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

다. ‘낙동강벨트’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혼전 양상이다. 충남 11곳 중 6곳이 안정권으로, 충북 8곳 중 5곳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비례 의석은 8~10석을 쟁길 것 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6일 사전투표 종료 후 브리핑에서 “역대 총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년 민심이 확인됐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최소 10석을 확보할 것 이란 전망이다.

진보당은 부산 연제·울산 북구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비례대표 후보(더불어민주연합)까지 더하면 5석을 확보할 것 이란 분석이다.

녹색정의당은 경기 고양갑 심상정 후보의 지역구 당선 여부와 비례정당 지지율에 달려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당선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비례대표 지지율은 3% 안팎으로 나와 1~2석 확보가 가능해 보인다.

새로운미래는 세종갑 김종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고 총선서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관권선거를 중단하고 당장 총선에 손을 떼라”고 밝혔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총선 선거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석달 동안 ‘총선용 관권선거’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무려 24차례나 지방투어에 나섰다”며 “윤석열 투어”에서 남발한 개발약속의 재원이 무려 900조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청주를 마지막으로 ‘윤석열 투어’는 중단했지만 사전투표 첫 날엔 다시 부산을 누볐다”며 “특히 부산대병원 권역의상센터에서는 야당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해 끈적한 정치테러 사건마저 우회적으로 소환해, 마치 의료 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일엔 비공식 일정으로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 있는 파평 윤씨 종친 분가까지 찾았다”며 “선거철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대통령에게 ‘총선 반칙왕’이라 명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젊은 표심 잡아라”... ‘2030 투표율’ 막판 변수

사이 보수·의정 갈등 등 포인트

4·10 총선의 막판 변수로 상대적으로 무당층이 많은 2030세대의 투표율이 떠오르는 가운데, 각 당이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화여대 인근에서 사전 투표를 하며 여성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 등 ‘논란 3인방’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민감한 공정을 꺼내 격전지에서 판세를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앞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대전의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한 표를 행사했다.

이대표는 “연구개발 예산 지원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것 같다”며 젊은층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다.

여야 대표의 행보는 젊은층의 표심이 박정 지역구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은 3일동안 어느 당이 더 청년층의 표심을 잡느냐가 승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기화 되고 있는 의정 갈등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의정 갈등은 고물가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더불어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지만, 실제로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인 ‘사이 보수’가 얼마나 투표장으로 갈지 여부도 막판 관전 포인트다.

서울=김선욱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